

부활 제 2 주일

기도서 283 면(B해)
 제1독서 : 사 도 4, 32-35
 제2독서 : I 요한 5, 1-6
 복 음 : 요 한 20, 19-31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은 행복하다”

(요한 20, 29)

□ 강 론



믿음과 불신

문 정 현 신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은 문이 잠겨 있는 방안에 있었다. 바로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박혔던 당신의 육체를 보여주신다. 이것은 곧 아버지께로 가실 예수께서 약속하신대로 다시 오실 수 있음을 예시한 것이다.

“지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요한 16 : 16).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며 아름답고 의연한 산모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산고는 크지만, 그러나 산고를 겪고 아들을 낳으면 그렇게 기쁠 수 없다(요한 16 : 21).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고통과 기쁨을 대조시킨 것이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기쁨과 평화에 관하여 말씀하신다. “너희에게 평화와 기쁨이 있을!”(요한 20 : 19). 안부를 묻는 듯 하지만 그것은 고통이 반드시 기쁨으로 바뀔 것을 확증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평소 많은 이별의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희를 고아들처럼 버려두지 않겠다”(요한 14 : 18). “얼마 안가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요한 16 : 16-19).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당신이 약속하신 바 모든 것을 성취하겠노라고 말씀하신다. “기어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요한 14 : 18).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4 : 27, 16 : 33). “얼마 안가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요한 16 : 16-19).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 주셔서...”(요한 14 : 16-17, 26).

이렇게 약속과 성취 안에 하나의 과업이 제자들에게 위촉된다. 즉 부활 후 예수의 발현은 복음화 과업을 맡기시는 내용이다. “너희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명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마태 28 : 18-20).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루가 24 : 47).

요한복음에는 “용서받거나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는 것이다”(20 : 23) 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오 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온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여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16 : 19, 18 : 18).

이것은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실천문제다. 믿음이냐 불신이나! 신자들의 과업이다. 의심하는 토마가 바로 불신자를 대변한다. 토마는 손으로 만져보는 감각적 표시에 근거하여 믿겠다고 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하나의 고관이었다. “너희는 기적이나 신기한 일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다”(요한 4 : 48) 라고 나무라셨다. 토마도 이렇게 우증을 듣는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 : 29).

이 복음서가 쓰여진 시대의 교회는 믿는자와 믿지 않는 자와의 다름 중에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가르친 것이다. 오늘날 믿는자와 믿지 않는자의 가치관은 천차만별이 있다. (장계 주임신부)



4월의 대화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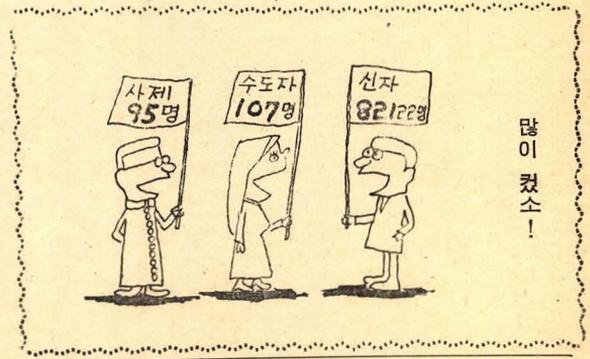
대화 1. - 화합을 바탕으로 각정당이 서로 협조하고 대화해 나가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무엇이 있겠는가! 말이 안통하는 외국사람들과도 대화를 하는데 다같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입장에서 대화를 해나가면 해결되지 않을 일이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정치인 만큼 힘이 있다고 일방통행이 뻐서는 안될 것이다. /무슨 일이든 힘으로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힘을 구사했다면 지난 선거때 국가원수인 나를 욕하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써 무슨 조치를 취했을 테지만,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힘을 구사하겠는가! -4월이 결코 잔인한 달만은 아닌 모양이다. 이토록 아름다운 대화가 또 어디에 있을꼬. 제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빌고 또 빈다.

대화 2. - 상황에 따라서는 개혁을 위한 국민적 서명운동의 전개도 생각하고 있다. /헌단체에서의 개혁 논의는 안정과 정치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견해와 주장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다. 하지만 “뿐이다”라는 표현이 갖는 의미는 실로 무서운 독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화 3. - 사면·복권이 조속히 이뤄져야 12대 국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사면·복권이 가능해 지도록 여건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 -몇일전까지 만해도 김씨의 문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어 기쁘다. 더구나 당사자인 김대중씨가 자신의 문제를 등원의 전제조건으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견해를 밝혔다고 하니, 박수를 보낼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사면과 복권은 꽤야 한다. 경기는 공정해야 하니깐. 그리고 화합이란 힘있는 자의 결손과 양보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양자의 균형이 곧 안정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벌써 4·19가 만 15주년을 맞고 있다.

숲 정 이 산책



성서교실 ⑥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마르코 15:34(마태 27:46)

그리스도의 생애는 십자가 위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성서도 여기에 그 절정을 두고 있으며, 그리스도 교의 근본 의(義)도 여기에 숨겨져 있기에, 예수의 이 절규를 정확히 알아듣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예수의 이 절규의 말은 성서주석가들에게 최대의 십자가이다. 고금의 학자들은 이것을 해명하려고 애써 왔다. 이 해명을 위해서, 예수는 시편 22편의 서두만을 말하고 있으나, 실은 시(詩) 전체가 예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시편 22편 21절 이하에 나오는 「신뢰」와 「희열」의 회복이 예수 입에서 나왔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은 절망의 표현이 아니고, 개선의 우렁찬 외침이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예수의 절규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는 십자가 상에서 완전히 하느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개선이 아니고, 절망이다. 그러나 절망이지만, 하느님께의 절망은 아니다. 「내하느님」의 「내」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것은 하느님께의 절대 신뢰를 말한다. 눈물을 흘리는 그를 냉혹히 내버리는 무자비한 하느님께 깊이 신뢰하면서 위탁하는 그의 태도는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대한 무한한 사랑과 신뢰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다. 자기를 아들이라 불렀던 「하느님의 아들」의 생애는 여기에 그 「관(冠)이 있게 된다. 변모의 산에서 「이는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지 않은 채, 예수는 죽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의미를 발견한다. 이것이 하느님 아들의 죽음이었다. 여기에 인류 희망이 있고, 위안이 있다.

우리도 「엘로이」, 「엘로이」 비극으로 마칠 때, 거기에 하느님 사랑의 극치를 발견할 것이다.



*****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

“우리는 주님을 뵈었소” 하고 증언하는 다른 사도들의 말에 의심을 품는 토마의 태도는 사실 신앙의 여정이란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오”(요한 20:25).

토마는 직접적인 확인을 요구한다. 그는 ‘믿는다는 것’을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보는 것’과 동일시 한다. 여기에 오해가 있다. 믿는다는 것은 보는 것과는 다르게 물질적인 시각의 차원을 넘어선다. 왜내하면 믿는다는 것은 감각이나 예리한 지성의 도움이 필요없는 내면 깊은 곳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빛에 의탁하는 사람만이 감각적인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토마의 요청은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여드레 뒤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이루어진다.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 보아라. 또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

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요한 20:27). 그러자 토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외친다. 이와 같이 토마는 예수께 대한 완전한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토마의 신앙고백이 훌륭했다손치더라도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안에 포함된 행복은 결코 얻어 누릴 수가 없었다. 이런 까닭에 예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듯 말씀하신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29).

예수의 이 말씀은 오늘날 더욱 내면화 되고 확대되어 모든 인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있으며, 불완전한 인간에게 동요되지 않는 자신감과 기쁨을 준다. 또한 확고한 믿음을 지니기 위해 물질적인 증명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이기도 하다.

예수는 결정적으로 사탄과 죽음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시다. 그를 믿는 우리들은 모든 생활환경에서 진실로 믿는자 되기 위해 변함없이 늘 친구이시며 스승이신—권능을 충만히 가지고 계신—그분께 의탁해야 한다.

주 단·포 목
훈수(회갑)웃감
맞춤이불·카템지
보드룬이불 전주목약점

◆년중 정기세일◆
3월 25일~4월 25일

서 울 주 단

☎ ③ 0453 ⑥ 5095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마기환 안과의원

부설 : 새한콘택트렌즈

원 장 안과전문의 마 기 환

한 남 회(비리시타)

TEL. 75-2203

(시집가는날. 태극당 건너편 불새대방 2층)

동 태극당

←전동성당 서 오거리→

● 동년제과로

마기환안과



□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전국 각 본당에서는 많은 예비자들이 넘치는 모습에서 신교 제3세기를 맞이하는 한국 가톨릭 교회로써는 즐거운 비명이겠지만, 예비자 교육 내용과 그 과정에 반성과 비판의 문제도 지적되기도—.

어쨌든 이번 부활절을 기해 우리 교구에도 많은 형제들이 불어났다.

교구내 44개 본당중 22개 본당의 부활절 영세식을 통해 세례를 받고 입교한 형제가 총 773명—, 반갑고 흐뭇한 일이다.

우리 모두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우리 자신들도 좀더 신앙적 모범을 보여야 할터, 영세 후 더욱 따뜻하게 형제애를 나누고 그들의 신앙심을 더욱 확고하게 다져줘야 하겠다.

□ 드디어, 결실을 보다

그동안 여러 성가집이 다양하게 출판되어 신자들의 단일 성가집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던 성가집이 새로 편찬 되었다.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사업중의 하나로 오랜 준비 끝에 결실을 보게된 이 성가집은 종전의 여러 성가집중에서 엄선한 곡들과 새로운 곡 등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다.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 의해 정식으로 채택, 인준되어 전국 교회에서 공동으로 사용되기로 결의된 이 성가집을 본 교구에서도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기를 권장하고 있다.

□ 순정이 명상

함께 빛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 남편이기 때문에 나라는 아내가 필요하고 그런 아내이기 때문에 나라는 남편이 필요한 것이다.

이 세상에는 결점이 없을 수 없는 완전한 인간이 없고, 또 그런 완벽한 남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는 아내의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만일 내가 요구하고 바라듯 남편이 완전한 인간이라면 나라는 필요없을 것이다. 또 완전한 여성으로서 완벽한 아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라는 남편의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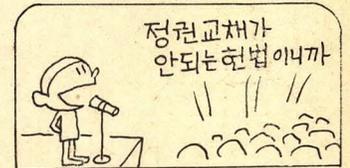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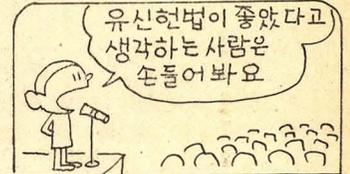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볼 수 있듯이 결점이 많고, 단점이 많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남편, 그런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이해와 깊은 애정, 그리고 참다운 용서가 필요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개체끼리의 항일로 시작되는 결혼은 상대의 사랑을 퍼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채우면서 사랑을 함께 빛는 것이기 때문이다.

봄, 좋은 계절이다. 여기저기 하얀 드레스에 하얗게 예쁜 신부와 멋진 신사부의 신랑, 그들의 첫 출발의 환한 기쁨에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한다.

요심이 (610) 김병오



KBS 특별기획—
바이블로포「전쟁과 평화」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한국 가톨릭 200주년 기념성지 화보 출간

우리의 눈과 발로 직접 그리스도의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본 KBS의 聖地巡禮 特別取材를 원색 성지 화보로 엮었습니다. 특집으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 화보(5면)를 덧붙였습니다. 한국 방송사업단 발행.

정가 30,000원

연락처 : 전주우체국 사서함101호 <주문신청>전주사업소

☎ 6-48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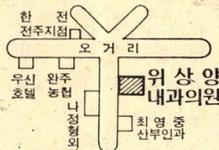
위상양내과의원

◎ 종합검사 내시경 및 초음파 검사시설완비

전주시 고사동 1가 184 (구 역전오거리)

☎ ②9152. 1752

위 상 양 (프란치스코)
김 병 희 (글 라 라)



특수자연시 컴퓨터로 마음에 원하시는 안경으로

눈을 밝고 보호해 드립니다

보안당 렌터

전주구역전오거리 ☎ 3-3032
주. 윤 베드로

학원생 수시 모집 (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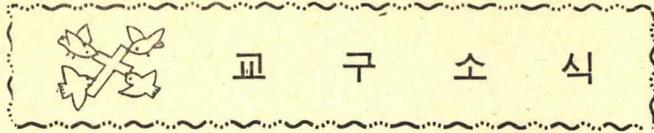
V. T. 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 서노송동 (중앙성당앞)

원장 : 김 테레사 (금순)

☎ ④ 9206 · ③ 5289



교 구 소 식

1. 춘계 사제총회 :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가톨릭 센터
2. 꾸르실로 동창회 : 남성 2차, 22차와 여성 18차 꾸르실로 주교자 동창회를 개최하오니 해당 꾸르실리스타는 전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오후 2시~5시 장소-가톨릭 센터 3층
3. 축! 견진 : 부안 천주교회 견진성사 일시-14일 공식미사 중에, 주례-박 정일 주교님
4. 오수공소 축성 : 임실본당 소속 오수공소 축성식
21일 오후 3시 오수공소 주례-박 정일 주교님
5. 사제 어머니회 4월 모임 : 회장-장수산나, 부회장-이테레사
4월 20일, 장소-장계 천주교회 10시 30분에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함께 떠납니다.
6. 웨골라레 젠모임(여자)
14일 오후 2시, 장소-중앙성당, 책임자-박 인호신부
본부에서도 오프로 각 본당 젠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7. 프란치스코 재속형제회 이리·익산지구 모임
20일(토요일) 오전 9시 30분, 장소-삼례 천주교회, 회비-1,500원
8. 4월 교미시움회의 : 21일 오후 2시, 장소-전동 천주교회 회의실,
대상-각 꾸리아간부 직속쁘레시디움간부 전원
9. 교리교사 각 지구 임원 및 각 본당 회장단 재모임
4월 15일(월) 오후 6시 30분, 장소-가톨릭 센터 3층, 안전-어린이신앙대회 전
참가자격-교구임원, 각지구 회장단, 각본당 회장
10. 성소주일 행사 : 광주 가톨릭대학 방문 견학 및 1일피정
일시-4월 28일(일요일) 오전 9시 30분 출발 집결시간-오전 9시, 집결장소-가톨릭 센터
대상-중·고·대·일반 성소모임 회원 및 관심있는 남학생
접수마감-4월 25일까지(차량관계), 접수처-교육국(☎ 0041~3) 전화 또는 엽서 이용 바람
지참물-성서·성가집·필기도구, 회비-2천원
11. 군산·옥구지역(3지구) 아치에스 : 21일 오후 2시, 오룡동 천주교회

전주시 서노송동 639-3	중 앙	사 제 관 ⑥ 1 7 1 3
주임신부 성 민 호		수 녀 원 ⑥ 1 7 1 2
보좌신부 한 정 현	천 주 교 회	사 무 실 ⑥ 1 7 1 1
사도회장 김 인 협		

- ☆ 미사시간
 일요일 : 오전 6시·9시-학생, 오전 10시30분-공식
 오후 4시-어린이, 7시-오후
 월요일 : 오전 6시, 화~목요일-오전 6시·오후 7시
 금요일 : 오전 10시30분-어머니·오후 7시
 토요일-오전 6시, 오후 7시-특전
- ☆ 예비자 교리(9월반) 모집(3째주부터 개강)
 일반인 : 목-오후 7시30분, 일-오전 11시 30분
 지성인 : 일-오후 8시, 노인 : 금-오전 9시
 직장인 : 토-오후 7시30분, 학생 : 토-오후 5시
1. 판공성사 못보신 분 : 평일 미사후
판공성사표 없으신 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먼담 후 드림
 2. 9월반 예비자 모집 : 새로 시작하는 9월 영세반 예비자들을 많이 인도합니다
 3. 첫영성체 교리 : 20일 개강(토-2시, 일-1시, 2회)
대상-신자 자녀 3학년~6학년까지(6월 9일 예정)
※ 부활에 영세하신 분 자녀 포함
 4. 본당 환경미화 : 본당 화단에 알맞는 꽃과 나무 단체와 개인별로 현수합니다
 5. 사순절 저금통 : 오늘까지 가지고 오세요
 6. 새성가집 : 금주부터 사용합니다
 7. 한국 가톨릭 대사전 판매 : 미사 전후(오늘) 1질-6만원(3회 분납 가능)
 8. 본당내 M.E. 부모모임 : 18일 오후 7시30분, 강당
 9. 금주행사 : 꾸리아-금일 오후 1시30분
반장 회합-19일 어머니미사 후
성모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애령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10. 봉헌 감사드립니다
제의-증거자의 모후(6만4천원), 스피커-김철수
 11. 성미 봉헌 감사합니다 : 누계-약5가마(약 30만원)
 12. 1/4분기 본당유지비 결산보고
총수입-30,956,216원, 총지출-30,548,428원
잔액-407,788원
- ☐ 지난해 봉헌금 : 1,539,095원 교무금 : 798,000원